

대학이 제2의 인생을 디자인하다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로그 디자인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코앞이다. 학생들은 여섯 장의 대입원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터다. 내년 1월이면 곧바로 시작되는 정시까지 가게 된다면 초조하고 지루한 5개월여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대입시즌이 되면 으레 푸릇한 젊은이들의 결박된 삶이 조명되거나, 산업전망과 같이 뜨는 직업의 이야기가 언론에 도배된다. 거기에 산업 현장에서 일하느라 대입 기회를 놓친 직장인들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인다. 머리가 반백이 되어야 이제 공부할 겨를이 생긴 만학도들은 대입이라는 무대의 조명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대학이 학령기의 등용문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만큼 그런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리라.

숲만 보지 않고 나무까지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 재수, 삼수가 아니라 오수, 십수, 육십수의 대학 신입생도 있다. 물론 학령기 학생들과는 다르게 연거푸 시험을

보다가 대학에 온 건 아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반고에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했다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할 경험으로 대학에 온다.

이를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이라고 부른다.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만학도 전형'으로, 대학에 간다면 학령기 학생들과는 10년 정도 세월의 간극이 있는 셈이다. 이렇게 세상의 별 관심 없이 대학에 들어 온 학생들이 적지 않다. 충청북도에 있는 한 대학을 보면 23살부터 83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학습자들이 200명을 넘는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대학공부를 시작하나? 당장에 만끽하고 즐길 것도 많은데 왜 두꺼운 책을 들어야 하나? 밑도 끝도 모르는 의문이 들지만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은 오히려 유쾌하다.

그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사회적 인정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도, 직업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다르고 다양하지만 대학에 가는 성인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희망한다.

재직자들은 지금 몸 담은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려고 한다. 오랜 기간 경력단절을 끊고 새로운 직

업을 누리려는 여성들도 그렇고,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바로 대학이다. 아이들로부터 능력있는 부모로 인정받고 싶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갖고 싶은 기초의회 의원들도 이 맘 때면 대학의 문을 두드린다. 모두 삶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고 새로움을 성취하는 일이다.

필자는 작고한 소설가 고(故) 박완서님의 광팬이다. 그의 소설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있다. 베이비부머의 꼬트머리 세대이고, 콩나물고실에다 이부수업을 톡톡히 경험했으며, 대학 갈 땐 졸업정원제로 물만 고기반이랄까 젊은 대학생들이 밭 디딜 틈이 없었던 캠퍼스를 기억하는 필자에게 지금의 대학은 "그 많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나?"이다.

그런데도 수시모집이다, 정시모집이다, 이런 때가 되면 좁은 문의 학력경쟁이 극성이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이제는 열린 눈으로 보자. 대학은 성인학습의 장(場)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인생설계의 '아비투스'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 서열화 대신 평생학습 서열화라도 만들어보자.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또 게임이 살인사건 주인공?



기지 수첩
최 빛 나
(산업부)

'겜험'. 게임혐오를 뜻한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살인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언론 브리핑에서 "조씨가 8개월 동안 게임을 하거나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등 게임 중독상태였다. 1인칭 슈팅 게임처럼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물론 범행 동기가 게임중독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사회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혐오가 붙었다. 시민들과 일부 언론들이 게임을 공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모 언론사에서는 "칼로 베는 살인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노출 시켰다.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게임 중독을 현상보다 범행의 원인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밝히면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조씨의 진술이 아니라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게임 중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명백한 검찰의 자제 판단으로 밝혀졌다.

게임 중독이 범행 원인이라는 과학적인 입증도 제대로 하지않고 속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게임 산업의 주축을 맡고 있으며 '게임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주 목표로 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어떠한 입장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게임사의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비판해오던 협회가 말이다.

오히려 정치권들이 검찰과 경찰을 겨냥해 질타를 이어오고 있다. 하태경, 이상현 의원 등은 SNS를 통해 "검찰은 의사가 아니다 진단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며 비판

했다. 권일용, 표창원 등 프로파일러 들도 현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분석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들은 게임을 놓고 선부른 해석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거부터 게임 혐오에 대한 프레임은 문지마 살인사건에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는 소재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게임과 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또 게임이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 사회성, 시스템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야 한다.

일부 언론과 시민들도 이제는 현상을 제대로 짚어 볼때도 됐다. 게임분야를 시도 때도 없이 살인, 폭력 사건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시선인가. 제대로 들여다 보길 바란다.

/vitr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5일 (금 7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효도하는 자녀보다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낫다. **48년생** 옛 인연에 관심을 가지자. **60년생** 두루 베풀면 손조롭게 해결. **72년생** 항상 맑은 날만 계속되면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 **84년생**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소지품을 조심.



37년생 흐지부지될 수니 확실한 문서로 남겨라. **49년생** 이상의 만남은 말썽을 부른다. **61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의 거래는 성공. **73년생**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 **85년생** 내 생각만 주장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38년생 진퇴양난인 경우라도 길이 열린다. **50년생**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 **62년생** 필요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74년생** 수고롭지만 돌아오는 실속도 있다. **86년생** 분수에 맞게 진행해야 손해가 없다.



39년생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해결된다. **51년생** 오늘의 거래는 좋은 성과가 있다. **63년생** 동쪽으로 가면 행운이 따르고 소득도 높다. **75년생**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빛을 발한다. **87년생** 일 처리는 미루지 않는 게 좋다.



40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가기에 건강이 별로 신통치 않다. **52년생** 힘을 길러야 할 때. **64년생** 가정을 등한시하면 불화가 생긴다. **76년생** 사소한 인연도 소홀히 하지 마라. **8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조심하지 않으면 망신 수이다.



41년생 일에 도전장을 내 보는 것도 좋다. **53년생** 의견대립이 생기나 발전적으로 나간다. **65년생** 잠을 능력을 미리 키워 두는 것이 좋다. **77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89년생** 식구원망은 누워서 침 뱉기이다.



42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 가서 분골이할 듯. **54년생**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오로지 노력뿐. **66년생**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온다. **78년생** 과신 말고 겸손하게 들어라. **90년생** 일에 실증 내지 말고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43년생 소원성취보다는 인내를 가져라. **55년생** 문서언이 강하니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67년생** 새 인연이 새로운 거래를 만든다. **79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노출할 필요는 없다. **91년생** 봉사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44년생 신규 사업이나 투자는 자제하라. **56년생** 구설수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날. **68년생** 머리가 맑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80년생** 흉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92년생** 창문은 한발 물러서는 것도 나아가는 방법이다.



45년생 뭔가를 시작하기에 지금이 딱 적기. **57년생** 물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니 노를 열심히 저어야 성공. **69년생**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81년생** 행복은 나 뿐 아니라 각자에게 고유한 것. **93년생** 배가 아프니 바깥 활동을 자제.



46년생 막혔던 구멍이 뚫려서 뚫리는 날. **58년생**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70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자제해야. **82년생** 길 나서는데 산 들바람이 불어준다. **94년생**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오래가지 못하니.



47년생 부드러움보다 강하게 나가야 하는 하루. **59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71년생**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라. **83년생**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의 도는 왜곡. **95년생** 달걀로 바위치지 말고 공부로 공을 들여보는 것이.



김상회의 四季 사주를 믿지 마세요 ②

즉, H는 수소원자의 기호이고 O는 산소의 기호이다. H와 O는 각각은 그냥 독자적 요소일 뿐이다. 그러나 수소원자 2개가 산소원자 1개가 만나면 물이 생긴다. 이러한 화학적 결합이 있을 때 비로소 물이라는 소중한 물질이 탄생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때 물이 왕성하면 물바다인 것이니 그러니 글 자적 뜻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주를 믿지 마세요 라고 한 것이다. 마치 지니가 병 속에 갇힌 마술사를 꺼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마술사는 그냥 계속 갇혀있을 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과 같다.

사주감명은 사실 고도의 통변이 요구된다. 단지 글자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신살 한두 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석되게 되면 말 그대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 되고 만다. 대운과 세운 그리고 월운과 일운 거기에 더하여 시까지 대입하여 세밀하게 보아야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보통의 감명이 이뤄지곤 하는데 물론 기본적인 통변의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주의 원리에 함이 있어도 좋은 작용이 아니라면 오히려 충충해주는 지지나 궁합의 인연을 만나게 되면 흉이 변하여 길이 되거나 최소 원충작용을 하기에 이와 같이 글자 요소대로만 보다 보면 감명에 실수를 하게 된다. 즉 함을 충이 해소시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충이 안 좋은 함을 변화시켜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음을 간과한다. 바로 마음 씀이다. 사주명조 감명이 수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 에너지가 함께 작동되게 되면 이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도 필자는 말하고 있다. "사주를 무시하세요!" 라고.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5시**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5	9	7	3	8	4		
6	8						9	3
1								6
8			2	3	6			7
			4	9				
9			8	7	1			4
7								2
4	6						3	5
	1	3	6		4	7	8	

		2					8	
	1	3	4		8	7	9	
8	7							1
	6		9		4		3	
				6				
	9		5	2			6	
2	4						8	6
	3	6	8		9	5	2	
		1					9	

정답

6	8	7	2	9	5	1	9	
9	5	1	2	8	6	2	9	7
2	9	7	9	1	5	8	6	2
7	9	5	1	8	9	2	6	
8	2	9	6	2	7	1	2	5
2	1	6	9	5	2	9	7	8
9	2	8	6	9	7	5	1	
5	6	9	2	7	1	2	8	9
1	7	8	5	9	2	6	9	2

7	2	6	9	5	2	1	8	9
1	2	9	6	7	8	9	5	2
9	8	5	2	9	1	6	7	2
8	9	7	2	1	9	2	6	5
6	9	1	5	9	2	8	2	7
2	5	2	7	8	6	9	9	1
2	1	9	6	5	7	2	8	
9	6	2	8	2	7	5	1	9
5	7	8	1	2	9	2	9	6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26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6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